

炭酸飲料와 香



南忠祐
宝樂香料 研究室長

現在世界的으로 널리愛用되고 있는 清涼飲料를 大別하여 炭酸飲料, 果實飲料 乳性飲料로 나눌 수 있고 其中 炭酸飲料에 있어서는 酸의 添加有無에 따라 二種으로 分類 할 수 있다. 即, 酸을 含有하는 것이 大部分으로 우리가 日常 즐겨 마시는 콜라나 푸도飲料 레몬라임等이 이에 屬하고 루트비어等이 酸을 含有하지 않는것에 屬한다. 炭酸飲料에 널리 利用되고 있는 香으로서는 植物의 果肉이나 果皮 或은 根茎等을 알콜과 물로서 抽出한 엣센스를 使用하고 濁度를 附與해 주기 為하여 乳化香料를 使用하는 傾向이漸次 높아가고 있다. 香의 種類로는 여과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콜라香 레몬, 라임, 오렌지, 포도, 진저엔, 크림소다等 現在 大氣가 있는 品目에 대해서만 說明하고자 한다. 각項目마다 詳細히 記述하기는 힘들고 簡便히 그 由來와 成分 그리고 炭酸飲料에서 香에 影響을 미치는 因子가 많겠지만 其 中에서 糖度와 까스容等에 대하여서 짧막하게 적어 볼까 한다.

1. 콜라

Cola 혹은 Kola 라고 부르는 香의 起原은 벼오동料에 屬하는 植物 即, 西아프리카 原產인

Cola acuminata 혹은 *Cola uera*의 열매를 焙燒后 알콜 물 混液으로 抽出하여 얻는 香이다. 콜라 열매의 成分은

첫째로 크로로호름에 溶解하는 部分으로서 카페인 테오브로민 탄닌 脂肪等이 있고 둘째 알콜에 溶解하는 成分으로서 탄닌類와 Kola red 포도당, 塩等이 存在하고 其他 淀粉, 色素, 灰分, 섬유질, 水分等이 含有되어 있다. 콜라飲料가 처음으로 商品으로서 팔리기 始作한 것은 1884년 미국에서 존햄버顿이란 化學者가 콜라 나무의 잎과 열매를 抽出하여 이것으로 시럽을 만들어 供給 한 때서부터이다. 재미있는 일은 始作한 첫 해의 매상이 시럽 1칼론에 2弗씩 팔아서 全部 販賣된 것이 25칼론 그러니까, 50弗의 매상을 올린 것이 계기가 되어 現在와 같은 콜라飲料의 붐을 일으킨 것이다.

콜라음료의 種類로는 果實 香과 混合하여 진저엔콜라 라든지 오렌지콜라, 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 Hop Bitters 等을 brewing 과 酶酵에 依하여 製造되는 Brewed 콜라가 있고 루트비어와 비슷한 Herbal 콜라는 것이 있다. 現在는 콜라열매 抽出液單獨으로 使用되는 것은 적고 其外 다른 香例를 들면 생강 레몬 오렌지 시트론 바닐라 알몬드라임 라스베리等等과 混合하여 製造하는 경우가 많다.

炭酸飲料로서의 콜라는 糖度가 10~12.5pH가 2.3~3.3 까스容이 3.3~3.7이 通常으로 되어 있다.

2. 레몬

原來 레몬은 中国本土南部地方이 原產地인 柑橘科에 屬하는 *Citrus limon* Burm의 果皮로 부터 얻은 香이다. 主要成分은 디리모넨이 約 90% 含有하고 시트랄이 2~6% 그외에 제라닐아세테이트 리나닐아세테이트 메칠안트라닐레이트 카프릭酸, 카프리릭酸, 초산등이 含有되어 있다. 清涼飲料에서 레몬에이드라고 부르는 것은 레몬系 香을 含有한 炭酸飲料를 말하는 것으로 即 枸橼酸이나 酒石酸으로 酸味를 주고 雪糖으로 甘味를 준 탄산까스를 導入시킨 飲料를 말하는데 레몬에이드(-ade)란 말의 解釋이 国家에 따라 天然果汁을 반드시 含有하여야 된다는 끗도 있고 含有하지 않아도 되는 끗이 있는 듯 하다. 그러나, 現在 레몬香을 单独으로 使用하는 境遇는 드물고 一般的으로 레몬에이드라고 하면 오렌지나 라임 벨트가웃트, 시트론, 그레이프 후在过渡, 시트로네라, 시트로네롤, 자스민, 제라니올, 유틸알콜, 바니라等을 適量混合하여 調合한 香을 使用하고 있다. 特히 興味있는 일은 요사이 欧美各国에서는 레몬라임 드링크에 強化剤로서 비타민을 添加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炭酸飲料로서의 레몬은 糖度가 8.5~13, pH가 2.7~3.0 까스容이 1.1~3.8 程度가 普通으로 되어 있다.

3. 라임

라임香은 柑橘科에 屬하는 *Citrus aurantifolia* 의 果實에서 얻어지고 種類로는 애시드라임과 스윗트 라임으로 大別할 수 있는데 이中 스윗트라임은 香面에서는 그리 重要치 않다. 原產地는 東印度群島이고 그곳으로부터 아시아 大陸에 伝해 내려 왔고 成分은 알파피넨 흘후탈, 디리모넨, n 노닐알데힐, 보르네올, 시토랄, 제라니올, 알파테르페네올 等이 含有되어 있다. 興味있는 일은 라임 香이 清涼飲料에 使用되기 오래前에 라임쥬스로서 医藥用 即 피혈病 치료에 쓴 적이 있다는 事實이다. 라임 饮料에도 種類가 여러가지 있는데 特히 外國에서는 거의가 라임飲料에는 天然라임 쥬스가 열마程度 含有되어 있는 것이 普通이다. 現在는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라임 单独으로 使用하지 않고 레몬과 함께 래

본라임으로서 더욱 有名해지고 特히 洋酒 진과 混合해 마시는 라임香을 主로한 Quinine Tonic으로서 人氣가 높아 가고 있다. 糖度와 까스容 pH는 레몬과 거의 同一하다.

4. 오렌지

오렌지種을 香面에서 分類하면 스윗트 오렌지와 버터오렌지가 있다. 前者는 東南아시아가 原產地이고 植物名은 *citrus sinensis*이다. 1520年頃 풀류갈인이 마카오를 占領한 直後에 欧美各國에 퍼져간것 같다. 現在의 產地로는 美國의 캘리포니아 地方 후로리다地方과 프랑스, 기니아, 브라질, 이태리, 스페인, 東西印度諸島, 파키스탄等地에서 耕作되고 있다.

成分으로는 디리모넨, 데실알데힐, 시트랄, 유틸알콜, 리나롤, 개미산, 초산등이 含有되어 있다. 버터오렌지香은 柑橘科의 *Citrus aurantium*의 果皮에서 나오는 오일로서 오일量으로 볼 때 스윗트 오렌지에 比해서 적고 苦味가 나는 高融點의 物質外에는 成分上으로는 스윗트 오렌지와 別差가 없다. 產地로는 시실리, 스페인 西印度等으로 알려져 있다. 外國에서는 오렌지飲料는 天然果汁이 얼마간은 들어가 있어야 하는것이 普通이고 까스가 導入되는 경우에는 레몬香과의 配合品이 使用되는 例가 가장 많은것 같다.

炭酸飲料인 경우 普通 糖度는 10~14, pH 2.7~3.6 까스容은 2.6~3.0으로 되어 있다.

5. 포도

포도香 製造用에 쓰이는 포도는 黑青色 나는 Concord種과 黑色이 나고 果皮는 甘味가 있고 果肉은 신맛이 나는 worden種과 붉은 色이 나는 Catawba와 Delaware種, 主로 乾포도用으로 쓰이는 白色의 Muscat of Alexandria 와 Sultana種이 있다. 포도香을 使用한 炭酸飲料의 種類는 Concord種에서 나오는 메칠안트라닐레이트 香氣를 主로 하고 다른 合成香料를 添加해서 製造하는 것과 天然포도쥬스의 濃厚液과 合成香料를 調合해서 쓰는 境遇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지만 포도酒와 Cognac을 少量 添加하여 製造하는 경우와 直接 포도쥬스를 使用해서 炭酸飲料를 製造하는 것들이 있다.

一般的으로 糖度가 높으면 酸度도 높아야 하며 까스容도 높아야 한다. 포도飲料에서는 糖度와 酸度가 높음에도 까스容은 그리 높지 않은것이 普通이다. 糖度는 10.5~13.8 까스容은 2.1~3.7平均 pH는 2.5~3.8 程度가 通例로 되어 있다. 外國에서 使用하는 天然포도쥬스의 成分을 보면 総固形分이 17.92% 糖分이 14.62%, 非糖類分이 3.38% 酒石酸으로서의 酸量이 1.14% Crean of tartar 0.77% 灰分이 0.39%, 탄닌과 色素가 0.22%로 되어 있다.

6. 진저엘

진저엘은 생강科 (Zingiberaceae)에 屬하는 *Zinger officinale*의 根茎으로부터 얻어진다.

처음부로 진저엘이 알려지기는 紅海를 往來하면서 商行為를 하던 아라비아人으로 부터 古代 희랍人과 로마人에게 伝해졌고 其後 九世紀頃 独逸파 프랑스 十世紀頃에 英国에 伝해져서 現在까지 내려온 것이다. 世界的으로 알려진 진저엘의 產地로는 印度의 코친, 쟈마이카, 西아프리카, 아시아等으로 되어 있고 其中 코친產과 쟈마이카產이 一等品으로 알려져 있다. 成分은 *n*-데실알데힐, *n*-노닐알데힐, 디-캄펜, 디- β -헵란드렌, 시네올, 디-보르네올, 리나롤, 시트랄, 진저비렌 등이다. 진저엘飲料의 種類는 糖度와 酸度에 따라서 드라이타입과 골든타입이 있는데 前者の 糖度는 後者보다 낮고 酸度는 약간 높다. 골든은 그 反對이나 진저엘飲料에 利用되고 있는 香은 根茎을 抽出한 엣센스인데 香臭性은 그 根茎에 含有된 精油의 含量과 진저린 혹은 진저롤이라고 알려져 있는 오래오래전에 따라서 決定된다. 엣센스의 種類로는 진저엘엣센스 自体만을 使用하는 경우는 別로 없고 카시아, J字香, 감귤類香等과 混合하여 使用한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감귤類中的 라임과 레몬이 진저엘 香과 第一 잘 調和가 되는듯 싶다. 炭酸飲料로서의 진저엘은 까스容이 3.5~3.8, 糖度가 8.5~10.2, pH가 2.3~3.2가 普通이다.

7. 크림소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欧美各國에서 人氣가 있는 크림소다 飲料는 原來 美國에서 開

發된 飲料로서 바닐라香을 넣은 아이스크림에서 부터 나온 炭酸飲料이다. 크림소다를 製造함에 使用되는 香으로서는 첫째 바닐라엣센스를 使用하는 것과 바닐라系香과 레몬, 오렌지, 시트론等과 混合하여 添加하는 경우도 있고, 배나 바나나等의 과일香과 調合하여 使用하는 例等이 있다. 얼마前까지 만해도 바닐린과 쿠마린을 함께 使用했으나 쿠마린이 人体에 害가 있다고하여 使用禁止가 되어 近來에는 바닐라香만 使用하고 있다. 即 크림 소다의 主香은 바닐라이고 위에서 열거한 外에도 커피, 초코레이트, 코코아, 캐라멜, 콜라香等과 같이 使用하는 경우도 있다. 炭酸飲料로서의 크림소다는 대개 糖度가 9~12, 까스容이 2.5~3.5, pH가 4.9 程度가 普通으로 되어 있다.

結論

上記에서 列舉한 外에도 파인애플, 바나나, 체리, 사과, 라스베리香等도 清涼飲料에 使用할 수 있다. 特히 우리나라에서 사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實은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사과酒의 명칭인데 日本人들이 감귤科系香으로서 炭酸飲料를 製造하여 사이다라고 부르기始作 한데서 나온 말이고 라무네라고 부르는 것도 레몬에이드를日本人이 잘못 부른데 기인된 것이다. 結論的으로 炭酸飲料의 製造에 있어서 香이 좋아야 함은勿論이고 위에서 簡単히 言及한 糖度, pH, 까스容等도 重要하지만 其外 用水, 使用하는 酸의 種類 甘味料의 種類等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함으로 그리 簡単한 問題는 아닌 것 같다.

앞으로 清涼飲料業系와 香料業系가 힘을 合하여 繼続的研究가 必要할 것으로 生覺된다.

